진짜 대한민국
관광여가
행복위원회
관광과 여가로 국민행복을 이끌다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잘사니즘 위원회
산하 관광여가행복위원회

보도자료

2025년 5월 25일 배포 |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붙임 1쪽 포함) | 배포: 정란수(010-4631-6532)

문의처 : 공동위원장
나효우(010-5162-1414) / 민경석(010-9766-1111) / 정란수(010-4631-6532)

영호남 6개 시·도 관광직능단체 대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더불어민주당 잘사니즘 위원회 「관광여가행복위원회」 남부권 관광회의 개최

- k-관광선진국, 관광과 여가로 국민행복을 이끈다 -

대선을 1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영호남 및 제주도 등 남부광역권 관광인 대표자들이 23일(금)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공식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날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등 남부광역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계, 관광단체, 관광기업 등 관광 분야 직능 대표자 20여 명은 위기에 처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잘 사는 지방을 이끌 적임자는 '잘사니즘'을 제창한 이재명 후보라고 지목하면서 핵심 공약에 지역 관광의 회생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각계 대표들은 ▲관광복지국가 체계 마련 ▲지방국제공항 관광클러스터 조성 ▲K-관광 로컬콘텐츠 생태계 육성 등 지방이 잘 사는 관광정책 수립과 공약 현실화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후 잘사니즘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어기구·유동수) 산하 관광여가위원회(위원장 나효우·민경석·정란수)가 개최한 남부권 회의가 열렸다. 이번 남부권 회의는 서삼석 민주당 전남도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과 나광국 전남도의원이 전남 개최를 지원했고, 김영미 동신대 교수도 수석부위원장 자격으로 힘을 보탰다. 정길영 전 광주관광협회장, 박창규 전남도립대 교수, 최영기 전주대학교 교수, 고계성 경남대학교 교수, 양재영 경북 경산시의원, 김의중 전 부산관광협회 사무국장 등 20여 명의 남부권 위원장단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관광여가위원회 남부권회의에서는 '잘사니즘'을 구현하기 위해 관광여가 정책이 어떻게 마련돼야 하는지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남부광역권 관광회의는 주말에 부산·대구·경북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붙임 : 지지선언문, 남부광역권 관광회의 사진 1부.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관광여가행복위원회 정책 및 언론배포담당 정란수(☎ 010-4631-65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6개 시·도 남부광역권 관광인 대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문

오늘 자리를 함께한 광주·전남·전북, 부산·경남, 경북의 관광인 대표들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 빚어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우리가 종사하는 '관광산업'의 육성에 있음을 새삼 강조한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코로나 팬데믹의 굴레를 벗어나기도 전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와 내란 사태까지 겹쳐 사상 초유의 관광 암흑기를 맞고 있다. 역대급 경기 침체 장기화로 국민의 기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여가와 관광 활동 기회는 실종되고, AI 기술 보급 확대로 여행업과 호텔업을 비롯한 관광업계의 일자리는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관광의존도가 높은 지방의 실정은 더욱 암담하다. 농산어촌이나 섬 지역같이 관광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일수록 관광객 방문의 감소는 한층 심화 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 강국』『문화 강국』을 표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야말로 우리나라의 '문화관광산업'을 살릴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선언한다. 이번 대선에서 꼭 승리하여 위기에 처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잘 사는 지방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한다.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인구 감소로 향후 지방 관광의 미래는 글로벌 관광에 있음을 인식하여 ▲지방국제공항과 국제크루즈항 연계 관광클러스터 조성 ▲로컬콘텐츠 개발로 지방에 의한 K-관광 콘텐츠 산업 생태계 확립과 함께 ▲주4.5일제의 단계적 도입으로 우리 국민의 쉼과 힐링을 보장하는 지방 중심의 관광복지국가 체계 마련을 새 정부의 관광정책 기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선언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계획 재검토 등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로 지역의 청년들에게 관광 창업과 일자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새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자 한다. 끝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관광제도와 정책으로 보장하는 관광대국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

2025년 5월 23일
6개 시·도 남부광역권 관광인 대표 일동

< 주요 관련 사진 >

지금은 이재명!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잘사니즘위원회 산하 관광여가행복위 남부광역권 회의
주최 : 잘사니즘위원회 산하 관광
행복위원회
일시 : 2025. 05. 23.(금) 15
장소 : 전남도의회 초의실